

이젠 스마트한 삶을

성기훈 | 중도일보 상임고문



#1 유신시절인 1973년 봄 지방신문정비(1도1사추진)가 속도를 내고 있었다. 충청남도에서도 중도일보와 대전일보 중 한 곳은 간판을 내릴 운명이었다.

이런 와중에 대전MBC 장익제전무가 중도일보 편집부장이던 내게 보도부장을 맡아 줄 것을 제안했다. 아내가 신문사가 불안하니 이참에 옮길 것을 요청했다. 내심 가고싶었지만 장전무를 만나 전사원이 난파선에 탄꼴인데 어찌 내 한몸만 탈출하겠느냐면서 갈수 없다고 했다. 대신 H부장을 천거했다.

#2 1974년 2월 뒤늦게 대전일보 편집기자가 되어 스포츠판을 맡았을 때 “고연전”이란 제목을 붙이면 윗분은 대장에서 연고전으로 고쳤다. 그러면 제작국에 가서 동판을 뜨기 전 원래대로 제목을 고쳐놓곤 했다.

#3 1980년 계엄기간, 신문제작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는 특히 따가웠다. 매일 지면 각각의 대장을 도청에 머물던 군검열관에게 가져가서 “OK” 사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조간신문(조선,한국)에 난 내용을 통신기사로 받아 그대로 전재했는데도 판을 다시 짜라고 할 때였다.

오늘아침신문 그것도 중앙지에 난것과 똑같은 것을 석간인 지방지에 보도하는 것을 막다니.. 검열의 기준이 무어냐고 따질 수밖에..아무리 항의해도 지역 위수사령관의 지시라고

요지부동일때 정말 허탈하고 기가 막혔다. 그래서 었을까? 그해 8월 13일 숙청이란 이름으로 뜨거운 아스팔트위에 내동맹이 쳐졌다.

유신기간 1도1사추진때나 80년 계엄때 등을 통해 신문쟁이로서의 내길은 양지쪽이기보다 응달쪽이었고, 아스팔트위를 걷기보다는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덜커덩 거리며 가는 편이었다. 이음매가 자주 끊어지고 앉은 자리는 늘 비좁거나 부실하기만 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순탄치도 않은길을 혼자 터벅터벅 걷고 또 걸었다.

살림이 힘들어지거나 그나마 낡은 줄마저 끊어질라치면 아내는 “당신은 고집불통 그것이 문제야, 고집 좀 죽이고 양지쪽 길을 걸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했을것 아네요.”라면 안타까운 심정을 쏟아내곤 했다. 그러면 “한끼 잘먹자고 내생각 내길을 바꾸라고 안되지. 고생이 좀 되더라도 남자는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 돼”라면서 이어지는 투정을 봉쇄하곤 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

인간적인 의리라든지 내생각이나 주장은 선이요 정도라는 오만이 타협이나 양보 등을 멀리하고 융통성이 모자란 삶을 살게 했던것 같다.

#4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되던 시절인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구상을 밝혔다. 그때 일부 정치인 지식인이 반대했다. 먹고살 쌀도 모자른판에 사치스런 고속도로라니 가당치도 않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때 “맞아 먹을쌀도 부족한데 누굴위한 고속도로냐”하고 고속도로 공사를 포기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가난에 쪼들리던 서민생활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73년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다는데.

#5 노무현 대통령시절 충남 연기군 남면을 중심으로 조성되어온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이명박대통령이 한나라의 수도기능을 분할하는 것은 안된다며 교육과학도시로 수정추진의 지를 밝히면서 온나라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충청지역 터주정당인 선진당과 민주당은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항전중이고 특히 한나라당내 친박계가 원안고수를 내세우면서 여야 대립보다 한나라 집안갈등으로 골은 깊어지는것 같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겸양이나 배려의 미덕은 아예 보따리에 파묻었는지 날선 공방만존재

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친박계 의원한분이 세종시 절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 수정안에 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 7개기관을 이전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랬더니 반응이 판이했다. 한쪽은 당내논의 활성화의 길을 텃다고 긍정적이고 다른 한쪽은 한마디로 가치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조선시대와 남북한 체제를 거치면서 지나치리만큼 편가르기에 익숙해진 것 같다. 유교는 인(仁)을 내세우는데 조선은 피투성이 당쟁을 심어왔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과 다르면 아예 왕래를 끊고 담장을 높이 쌓아 올리기에 급급했다.

배려하는 마음은 증발되었고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함)를 강조했지만 그건 한낱 자신의 주장을 미화하거나 상대를 설득하기위한 언어유희에 불과했다.

해방이후 분단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비의 불교와 사랑의 기독교정신에 용해되었을 법하지만 극단적으로 나뉘는 국민성을 바로 잡는데는 별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한국은 벌써 10년째 선진국 문턱에 서있다. 한국에선 아직도 낡은 ideology에 사로잡혀 의견대립이 극심하다.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어느나라든 선진국은 하나의 통일된 vision을 공유하면서 도약했다. 한국엔 반기업정서가 여전하지만 외국에서 보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삼성 LG현대등 대기업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방심하면 10-20년전 일본처럼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로 특별히 한국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온 일본학자 오마에 겐이치교수의 말이다. (2010년 1월26일 중앙일보)

외국인의 시선으로도 답답한 것이다. 치솟던 한국의 국력이 어째서 10여년씩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것일까? 오마에 교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통일된 비전이 절대적인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몇 개의 예를 든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선 안 되겠다. 특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옹고집으로 일관하던 자세도 내세울만한 것은 못된다. 좀더 열린시각으로 사안의 중심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2010년 나는 smart한 삶을 생각한다. 철들자 망녕이란 말도 있지만 생물학적 70대라는 나이를 떨쳐내고 스마트한 생각, 스마트한 몸짓으로 사는 것이다. smart의 자전적 뜻은 날카로운 눈치빠른 영리한 재빠른 솜씨 좋고 맵시있는 세련된 등으로 현재보다 앞

서가고 환경변화에 눈치빠르게 적응하는 고도의 기술과 능력이라.

봄이 올때 재빨리 봄옷으로 갈아입고 집안이나 주변환경도 화사하고 경쾌하게 정리하는 것. 화가나거나 불만이 생길때 그 부분을 신속히 잠재우고 덮어버리는 자세. 기분나쁜 환경도 확 바꿔버리고 아날로그적 사고에서 디지털사고로 차원을 높이는것. 대화를 하거나 토론할 때 차분하게 상대의 주장을 듣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장을 펴되, 발전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등.. 그렇게 하는것이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일 것이다. 핸드폰도 이제 스마트폰시대가 아닌가?

오마에 교수의 지적이 계속 뇌리에 박힌다. 한국인은 의견대립이 극심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와 통일된 비전을 가져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충고 때문이다.

세종시와 4대강 등과 관련된 작금의 국내상황을 보면서 우리국민이 지녀야 할 덕목은 통일된 비전을 가져야 하겠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좀더 스마트해져야 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말자에서 길이 아니면 새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자면 어떨까? 내 생각이 옳으면 상대방 생각도 옳다고 보면 안될까? 그래서 너와나의 생각을 합해 제3의 혹은 한쪽의 안을 모범답안으로 정한다면 그게 스마트한 삶이 되는것이고 스마트한 국민이 되는 것을.

눈 귀 콧막고 내생각만 외곶으로 주장하다보면 양쪽다 시대에 뒤지는 낙오자가 되고 함께 추락하는 길만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10여년씩 선진국 문앞에서 뭉기적거렸는데 더 이상의 제자리 맴뎠은 곤란하다.

줄곧 원조를 받아온 나라에서 2009년엔 작게나마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400억 달러의 원전을 수주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빌딩을 짓는가 하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선 메달을 14개씩이나 따고 특히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G-20국 제회의를 개최하는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는데 말이다.